

2018년 7월 13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실적 기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경신 알파벳 +2.58%, 페이스북 +2.19%, 아마존 +2.41%, 애플 +1.72%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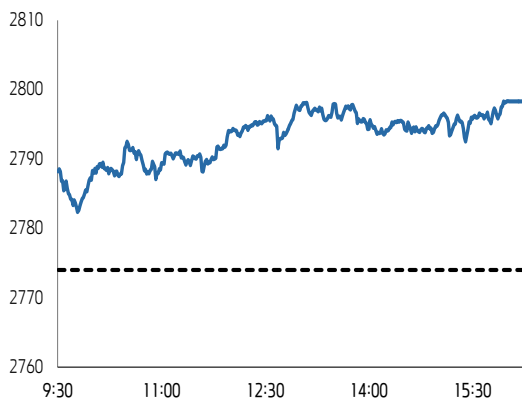
유럽증시는 무역분쟁 우려 완화에 힘입어 아디다스(+1.23%) 등이 상승 주도. 미 증시는 미-중 간의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된 데 힘입어 상승 출발. 특히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대형 기술주가 상승 주도. 한편, 다음 주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파월 연준의장이 언론과의 첫 인터뷰를 통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과 므누신 재무장관의 발언 또한 상승 요인(다우 +0.91%, 나스닥 +1.39%, S&P500 +0.87%, 러셀 2000 +0.39%)

미 증시는 ①대형 기술주 상승 ②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③므누신 재무장관의 발언에 힘입어 상승. 미 증시 상승을 주도한 종목은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 특히 아마존의 경우 'FANG' 기업들 중 가장 견고하게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일부 투자회사에서 목표주가를 2,000 달러로 상향 조정 한 점이 상승 요인. 이와 더불어 여타 대형 기술주 또한 2분기 실적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은 모습. 이 결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

한편, 다음 주 통화정책과 관련된 의회 청문회가 있는 파월 연준의장은 연준의장이 된 이후 언론과의 첫 인터뷰를 통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파월은 "경제는 최대 고용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경기 순환적인 관점에서 좋은 위치에 있다" 라고 주장. 더불어 "2015년 12월 이후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 라며 '점진적인 금리인상' 의지 또한 표명. 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무역분쟁이 확대되면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주장.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금리인하'를 언급.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Trade War(무역전쟁)가 아니라 Trade disputes(무역논쟁) 상태다" 라며 금융시장의 과민한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 더불어 "관세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은 없지만 주의 깊게 관찰 중" 이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 시키기 위한 발언을 위주로 언급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85.06	+0.19	홍콩항셱	28,480.83	+0.60
KOSDAQ	819.29	+1.80	영국	7,651.33	+0.78
DOW	24,924.89	+0.91	독일	12,492.97	+0.61
NASDAQ	7,823.92	+1.39	프랑스	5,405.90	+0.97
S&P 500	2,798.29	+0.87	스페인	9,767.40	+0.35
상하이종합	2,837.66	+2.16	그리스	752.40	+0.76
일본	22,187.96	+1.17	이탈리아	21,790.12	+0.3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강세

아마존(+2.41%)은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 했다. 알파벳(+2.58%), 페이스북(+2.19%), MS(+2.25%), 애플(+1.72%) 또한 견고한 이익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동반 상승 했다. 마이크론(+2.36%)은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 인텔(+2.29%), TI(+3.65%), AMAT(+1.06%), 램리서치(+1.22%) 등 반도체 관련 종목 또한 동반 상승 했다. 반면, 브로드컴(-13.76%)은 CA 테크놀로지(+18.65%) 인수 발표 이후 급락 했다. 넷플릭스(-1.23%)는 투자의견 하향 조정 여파로 하락 했다.

한편, 보잉(+1.59%), 캐터필라(+1.95%) 등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되자 상승 했다. 록히드마틴(+2.20%), 레이스온(+1.80%) 등 방위 산업체는 NATO 지출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 지자 상승 했다. 21세기 폭스(-0.86%)는 유럽의 유료 TV회사인 스카이를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소폭 하락 했다. 컴캐스터(+2.31%) 등 미디어 업종은 전일에 이어 M&A 이슈가 부각되자 상승 했다. 코카콜라(-0.27%), 펩시코(-0.90%), P&G(-0.34%) 등 필수 소비재는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25%	대형 가치주 ETF	+0.38%
에너지섹터 ETF	-0.61%	중형 가치주 ETF	+0.21%
소매업체 ETF	-0.41%	소형 가치주 ETF	-0.04%
금융섹터 ETF	+0.18%	배당주 ETF	+0.05%
기술섹터 ETF	+1.58%	변동성 ETF	-3.77%
소셜 미디어업체 ETF	+2.30%	대형 성장주 ETF	+1.13%
인터넷업체 ETF	+2.00%	중형 성장주 ETF	+1.17%
리츠업체 ETF	+0.24%	소형 성장주 ETF	+0.90%
주택건설업체 ETF	+0.32%	신흥국 고배당 ETF	+1.24%
바이오섹터 ETF	+1.62%	신흥국 저변동성 ETF	+1.26%
헬스케어 ETF	+1.11%	하이일드 ETF	+0.28%
곡물 ETF	+0.69%	물가연동채 ETF	-0.08%
반도체 ETF	+1.21%	Long/short ETF	+0.4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60.96	+0.20%	+0.90%	+0.08%
소재	367.07	+0.22%	+0.77%	-2.49%
산업재	616.29	+1.12%	+2.02%	-3.08%
경기소비재	894.21	+0.67%	+2.63%	+1.37%
필수소비재	538.35	-0.11%	+0.63%	+2.90%
헬스케어	1,009.29	+1.10%	+2.83%	+2.70%
금융	449.73	+0.19%	+2.12%	-2.40%
IT	1,276.00	+1.79%	+3.61%	+1.24%
통신	150.07	+0.52%	-0.48%	+4.19%
유틸리티	266.35	+0.09%	-0.52%	+8.00%
부동산	204.28	+0.20%	-0.16%	+5.4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별 차별화 장세 예상

MSCI 한국 지수는 0.38% MSCI 신흥 지수도 1.36%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349 계약) 여파로 0.30pt 하락한 295.7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4.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무역분쟁 이슈에서 어닝 시즌으로 초점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상승 했다. 특히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업종이 상승을 주도 했다. 한국 증시 또한 이러한 경향을 보일 수 있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파월 연준의장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점진적인 금리인상 의지를 언급한 점도 한국 증시에 우호적이다. 더 나아가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무역분쟁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 시키기 위한 발언 또한 투자심리에 개선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6월 수출입 통계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입 통계 결과에 따라 무역분쟁 이슈가 일시적으로 유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중국의 수출에 대해 달러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월(yoy +12.6%) 보다 둔화된 수치다. 수입 또한 지난달 발표치(yoy +26.0%) 보다 둔화된 전년 대비 20.8%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다음 주에는 월요일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과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실물경제지표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있다. 이외에도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매일 있으며, 수요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 또한 있어 미 국채 금리 변화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감안 오늘 한국 증시는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다음 주 주식시장을 기다리며 실적 호전 기대가 되는 종목들의 변화가 이어지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물가 상승세 이어져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9% 상승 했다. 한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3%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23만 2천건) 보다 감소한 21만 4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4주 평균 청구건수는 지난주(22만 3,750건) 보다 소폭 감소한 22만 3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신흥국 환율 달러 대비 강세

국제유가는 세계에너지기구(IEA)가 원유 수요가 상반기 하루 평균 150 만 배럴 증가했으나, 하반기에는 130 만 배럴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했으나,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발표에 힘입어 상승 출발 했다. 한편, IEA 는 “원유시장의 불확실한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변동성 또한 확대될 수 있다” 라고 주장 했다. 여기에 리비아 수출 향만이 정상화 되었다는 소식이 전일에 이어 오늘도 이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특히 리비아 수출로 인해 하루 85 만 배럴 공급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달러지수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3%로 발표된 이후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달러 강세 요인이었다. 더불어 엔화가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점도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유로화는 ECB 의사록 공개 이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QE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데 따른 결과로 추정한다. 다만,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약세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보험권에서 등락 중이다. 멕시코 폐쇄화 등 신흥국 환율은 무역분쟁 우려 완화에 힘입어 달러 대비 1% 내외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채금리는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3%로 발표된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파월 연준의장이 “무역정책으로 경기에 피해를 준다면 금리인하도 가능하다” 라고 주장하는 등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여파로 하락 전환했다.

금은 달러화가 강세폭이 축소되자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1~2%대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43%, 철근은 1.27%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70.33	-0.07	-3.58	Dollar Index	94.805	+0.09	+0.43
브렌트유	74.45	+1.43	-3.80	EUR/USD	1.1672	-0.02	-0.16
금	1,246.60	+0.18	-0.97	USD/JPY	112.53	+0.46	+1.71
은	15.977	+1.01	-0.75	GBP/USD	1.3208	+0.02	-0.11
알루미늄	2,042.00	-0.87	-1.83	USD/CHF	1.0024	+0.65	+0.94
전기동	6,228.00	+1.35	-1.84	AUD/USD	0.7408	+0.57	+0.28
아연	2,581.00	+0.70	-4.41	USD/CAD	1.3158	-0.39	+0.20
옥수수	359.25	+1.70	-1.44	USD/BRL	3.8794	+0.09	-1.32
밀	484.50	+2.70	-4.15	USD/CNH	6.6961	-0.41	+0.57
대두	849.25	+0.12	-0.76	USD/KRW	1125.90	+0.53	+0.65
커피	111.55	-0.45	+2.20	USD/KRW NDF1M	1124.25	-0.32	+0.50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47	-0.18	+1.82	스페인	1.282	-1.80	-4.30
한국	2.547	+4.00	-0.20	포르투갈	1.740	-2.40	-5.40
일본	0.040	-0.30	+0.20	그리스	3.850	-0.30	-15.20
독일	0.357	-1.00	+5.80	이탈리아	2.620	-6.50	-10.40